

간호조무사의 직무영역별특성이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의료기관 근무자 중심으로-

양갑석^{*}, 조성제¹
¹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Stress in Relation to Job Features of Nursing Assistants - Case Study with Nursing Assistants in Seoul Metropolitan City -

kab-suk Yang^{*} and Sung-Je Cho¹

¹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조무사의 직무영역별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특성이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469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18.0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과 t-test와 일원변량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범위검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취득 연도와 연령,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에서는 근무지와 담당직무영역 및 근무형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간호조무사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 간호 인력이 되도록 담당 직무영역별로 표준화된 업무지침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job satisfaction and stress in relation to features of jobs taken by nursing assistants. The subjects for study are 469 nursing assistants active at work in various medical clinics and hospitals in Seoul Metropolitan City, engaged in a study conducted from May 1, 2013 through September 4, 2013. The positive analysis was verified at a significance level of five percent, and SPSS/WIN18.0 was used for statistics process. The analysis of frequency,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was then analyzed by multiple range test for statistics.

The analysis reveals that job satisfaction level marks significant variance in accordance to the year of nursing assistant certificate acquired, age, and their final academic backgrounds. As to the job satisfaction variances in accordance to job features, the location of working places, fields of jobs, and the mode of jobs mark the highest.

The study indicates that standardized directions for tasks in specific fields of jobs an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for consistent management are requisite for improved efficiency of nursing assistants and professional nursing workforce.

Key Words : Nursing assistants, Job analysis, Job satisfaction, Stress, Medical Institution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선진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노령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이고 국민의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진료 및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Corresponding Author : kab-suk Yang(Dongbang Graduate Univ.)

Tel: +82-10-8995-7326 email: hans3366@naver.com

Received March 20, 2014

Revised (1st April 9, 2014, 2nd April 29, 2014, 3rd May 7, 2014)

Accepted May 8, 2014

또한 해마다 증가되어 왔다.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료인력, 인적자원 중 간호직종분야의 근무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80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제2조 1항에서 명시한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제도는 1966년 7월 의료보조원법을 개정 간호대체인력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후원으로 최초배출하기 시작하였다[1]. 그 후 정부의 보건 의료망 강화계획에 따라 간호 인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수급계획의 일환으로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2].

현재까지 양성된 간호조무사 수는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59만975명이다[3].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 자원 중 간호분야 종사자는 262,001명이다. 이중 51.43%인 134,748명이 간호사이고 48.57%인 127,253명이 간호조무사이다[4]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양적인 수준을 외국과 비교할 때 인구 1,000명당 4.3명(2013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0.2명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5,6]. 이러한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간호조무사의 기존선행연구로는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있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로는[7-10]이 있고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는[11-13]이 있다. 연구결과[7,8]에서는 교대근무 및 근무장소에 따른 직무만족에서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군이 하는 군에 비해 업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근로조건만족도 조사에서는 교대근무를 하는 군이 안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의료기관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미라[9]는 간호조무사들의 직무만족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결혼상태와 임상경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말순[10]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로 대상자의 직무만족 정도는 평균 3.07점이었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무만족 정도는 최종학력, 근무기관, 근무 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업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업무스트레스요인의 모든 영역에 직무만족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혜자[11]는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야간근무 시 직무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혼자 근무해야 하는 부담감, 취미여가시간부족,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관계 악화, 소화 장애 등 건강문제 발생, 업무량과다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 대부분이 간호조무사의 직무만족도를 파악하고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연구함에 있어 일반적 특성이나 직무관련요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직무만족요인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영역별 직무분석을 통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 특성 외에 업무영역별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특성을 범주에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조무사의 직무상과 간호업무영역에서 이들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및 관리를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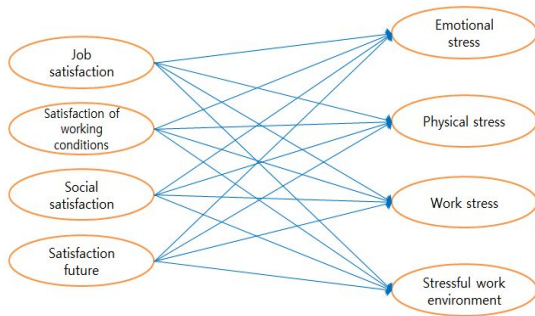
1.2 연구문제 제기

본 연구는 현재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업무영역별로 직무만족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간호조무사의 역할기대에 부합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조무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 둘째, 간호조무사의 직무영역별 특성은 어떠한가?
- 셋째, 간호조무사의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 넷째, 간호조무사의 각 직무영역별 업무내용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1.3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의 모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별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수에, 직무만족분석, 직무스트레스 분석, 직무영역별 업무내용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차이분석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연구범위로 하였다.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8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469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의 산출근거는 Cohen이 제시한 표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를 .35로 가정하고 power를 .70으로 하면 한 집단의 최소표본크기가 98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 수인 469명은 단일군 전·후 집단의 표본크기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조사자의 직접방문을 통한 개인별 면담으로 조사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12]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항목은 성별, 연령, 학력, 자격증취득연도,현장경력, 유무상태등을 측정하였다.

간호조무사의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50대 이상으로 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로 구분하였다. 자격증 취득연도는 1995년이전, 1996년~2000년, 2001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 이후로 분류했고 현장경력은 0~2년, 3~4년, 5~6년, 7~8년, 9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3.2 직무영역별 특성

직무영역별 분류항목은 의료법제3조1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의원, 한의원으로 구분하였다. 의료기관업무영역별 문항은 의료법 제80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규칙 제2조 1항에 간호조무사 업무한계로 명시된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13].

2.3.3 직무만족도 와 스트레스

2.3.3.1 직무만족도분석

개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직무만족도 척도문항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도 척도는 Hazan과 Shaver(1990)의 12개 문항을 변안한 것을 업무만족, 근로조건만족, 사회적만족, 미래지향적만족, 4개하위영역으로 영역별 3~4 문항 총 13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14].

Likert-type의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분하였다.

2.3.3.2 직무스트레스분석

김정인(1988)이[15]변안한 Ivancevich와 Matteson(1980)의 스트레스 진단검사(Stress Diagnostic Survey)의 30개 문항 중에서 20문항[16] 그리고 이종목과 박한기[17]의 직무스트레스 척도에서 조직 및 직무관련 하위 요인의 문항들 중에서 20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일차적으로 선정된 40개 문항들 중에서 동일내용의 문항을 통합했고, 둘 이상의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을 제외한 총 21문항을 정서적스트레스, 신체적스트레스, 업무적스트레스, 근무환경스트레스 4개 하위영역으로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하였다[15]. Likert-type의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분하였다.

2.3.4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별 업무내용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차이분석

업무영역별 분류문항은 2002년 국가시험정보원이 연구개발한 간호조무사 직무기술서[18]와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이 개발한 업무영역별 분류를 기초로 하였다[19]. 분류는 양방진료보조, 치과진료보조, 한방진료보조, 입원

환자진료보조, 특수간호보조업무, 요양시설간호업무로 하였다.

업무영역별분항은 양방진료업무보조 8문항, 치과진료 업무보조 8문항 한방진료업무보조 5문항 수술실 진료보조 5문항 입원환자간호보조업무 11문항 특수간호업무보조 7문항 요양시설간호업무 6문항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84.9%, ‘남자’ 15.1%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고, 결혼여부는 ‘미혼’ 37.7%, ‘기혼’ 62.3%이었다. 자격증 취득연도는 ‘2006-2010년’ 36.9%, ‘2011년 이후’ 28.6%, ‘2001-2005년’ 25.2%, ‘1996-2000년’ 6.4%, ‘1995년 이전’ 3.0% 순이었으며, 연령은 ‘40대’가 32.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대’, ‘2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59.5%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대학교졸’순이었고, 월 소득은 ‘121-140만원’, ‘141-160만원’, ‘120만원 이하’, ‘161-180만원’, ‘181만원 이상’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female	398	84.9
	male	71	15.1
Marital Status	Single	177	37.7
	Married	292	62.3
Year Certification	Prior to 1995	14	3.0
	1996-2000	30	6.4
	2001-2005	118	25.2
	2006-2010	173	36.9
	Since 2011	134	28.6
Years	20	108	23.0
	30	131	27.9
	40	150	32.0
	50	57	12.2
	More than 60	23	4.9
Last school	High School	279	59.5
	College	148	31.6
	University	42	9.0

Monthly Income	Less than 1.2 million won	96	20.5
	121-1400000	222	47.3
	141-1600000	122	26.0
	161-1800000	22	4.7
	More than 1.81 million won	7	1.5
Total		469	100.0

3.2. 직무영역별 특성

간호조무사의 근무기관 유형 및 직무영역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근무지는 ‘의원’이 38.2%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한방병원’, ‘병원’, ‘한의원’ 순이었으며, 수행 직무 진료과목으로는 ‘한방과’가 가장 많았고, ‘내과’, ‘치과’ 순이었다. 근무부서는 ‘외래’가 가장 많았고, ‘병동’, ‘접수 및 수납’, ‘처치실’ 순이었다. 담당직무영역은 ‘양방진료업무’ 56.3%로 가장 많았고, ‘한방진료업무’, ‘치과진료업무’, ‘요양시설간호업무’, ‘입원환자간호업무’, ‘특수간호업무’순이었다. 근무형태는 ‘고정번’이 55.7%, ‘2교대’가 11.5%, ‘3교대’가 32.8%이었다.

[Table 2] job characteristic

	Division	N	%
Location	General Hospital	32	6.8
	Hospital	56	11.9
	Dental Hospital	22	4.7
	Oriental Medicine	58	12.4
	Hospital care	12	2.6
	Dental Clinic	60	12.8
	Member	179	38.2
oriental medical clinic		46	9.8
	Nursing Facilities	4	.9
Departments perform ing duties	Medicine	96	20.5
	Surgery	18	3.8
	Ophthalmology	16	3.4
	Plastic Surgery	16	3.4
	Orthopedics	20	4.3
	Dental	94	20.0
	ENT	9	1.9
	Pediatrics	24	5.1
	Urology skin	9	1.9
	Mental Health	6	1.3
	Family Medicine	8	1.7
	Obstetrics and gynecology	12	2.6
	oriental medicine	115	24.5
	health medical examination	9	1.9
	Etc.	17	3.6

Work depart ment	OPD	132	28.1
	Receiving and Storage	104	22.2
	ER	11	2.3
	Aid room	83	17.7
	Surgery	12	2.6
	Ward	105	22.4
	Health geomjinsil	5	1.1
	Central Supply	4	.9
	Etc.	13	2.8
	Responsible for functional areas	health care services	264
Dental work		80	17.1
oriental medicine clinic		96	20.5
Inpatient nursing		8	1.7
Nursing care facilities		15	3.2
Job Type	Nursing Special care	6	1.3
	Fixed time	261	55.7
	Two shifts	54	11.5
	Three shifts	154	32.8

3.3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분석 결과

3.3.1 직무만족도 분석

간호조무사의 직무영역별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호조무사 직무만족도 전체의 평균은 2.55이다. ‘사회적 만족도’(M=2.72), ‘미래 지향적 만족도’(M=2.62), ‘업무만족도’(M=2.46), ‘근로조건 만족도’(M=2.44)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Job satisfaction of nursing assistants

	Sub-factors	Mean	SD
	Job satisfaction	2.46	.73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working conditions	2.44	.73
	Social satisfaction	2.72	.65
	Satisfaction future	2.62	.93
	Job satisfaction	2.55	.51

3.3.2 직무스트레스 분석

직무수행 시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직무수행 시 스트레스 전체의 평균은 3.63으로, ‘정서적 스트레스’(M=3.76), ‘근무환경 스트레스’(M=3.72), ‘신체적 스트레스’(M=3.60), ‘업무적 스트레스’(M=3.40)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tress when performing duties

Division	Sub-factors	Mean	SD
Stress when performing duties	Emotional stress	3.76	.60
	Physical stress	3.60	.71
	Work stress	3.40	.53
	Stressful work environment	3.72	.55
Stress when performing duties		3.63	.46

3.4 직무영역별 업무내용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차이분석

직무영역별 업무내용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방진료업무 간호조무사의 항목별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양방진료업무의 ‘환자 접수 및 안내/수납하기’(t=3.841, p<.001)와 ‘환자 진료 준비하기’(t=2.258, p<.05)는 간호조무사의 만족도가 스트레스 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활력징후(vital sign) 측정하기’(t=-2.076, p<.05)와 ‘근육주사 하기’(t=-23.890, p<.001), ‘정맥주사 하기’(t=-27.599, p<.001), ‘진단검사물 채취하기’(t=-25.660, p<.001), ‘피내.피하 주사하기’(t=-20.368, p<.001), ‘기구 세척 및 소독하기’(t=-26.503, p<.001)는 간호조무사의 스트레스가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Table 5] Itemized medical nursing assistants medicine service satisfaction and stress the difference (N=260)

Division	Satisfaction		Stress		t	p
	Mean	SD	Mean	SD		
Patient acceptance and guidance	3.08	.65	2.82	.76	3.841***	.000
Preparing for patient care	3.12	.73	2.96	.71	2.258*	.025
Vital signs (vital sign) to measure	2.94	.82	3.10	.79	-2.076*	.039
By intramuscular injection	1.98	.72	3.80	.77	-23.890***	.000
By intravenous	1.92	.73	4.06	.78	-27.599***	.000
Water sampling for diagnostic tests	1.90	.83	4.13	.80	-25.660***	.000
Intradermally Subcutaneous injection to	2.05	.87	3.93	.83	-20.368***	.000
The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instruments	1.91	.89	4.20	.79	-26.503***	.000

* p<.05, *** p<.001

치과진료업무 간호조무사의 항목별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치과진료업무의 ‘치과진료 준비하기’(t=7.557, p<.001)와 ‘치아충진물 준비하기’(t=6.895, p<.001)는 간호조무사의 만족도가 스트레스 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진공흡입기 사용 이물질 제거하기’(t=-14.904, p<.001)와 ‘치석,치태 제거하기’(t=-19.900, p<.001), ‘치아방아선 촬영 보조하기’(t=-7.098, p<.001), ‘발치 수술 보조하기’(t=-9.511, p<.001), ‘인공치아수술 보조하기’(t=-8.198, p<.001), ‘기구 세척 및 물품 소독하기’(t=-20.927, p<.001)는 간호조무사의 스트레스가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Table 6] Itemized dental nursing assistants work satisfaction and stress the difference (N=79)

Division	Satisfaction		Stress		t	p
	Mean	SD	Mean	SD		
Preparing for Dental	3.53	.84	2.35	.77	7.557***	.000
Preparing a tooth filling	3.70	.94	2.42	.87	6.895***	.000
Use a vacuum aspirator to remove debris	1.90	.74	3.97	.86	-14.904***	.000
Plaque, removing plaque	1.80	.67	4.30	.77	-19.900***	.000
Hwalyoung assist dental mill line	2.33	.81	3.51	.88	-7.098***	.000
Assist with the foot surgery	2.35	.79	3.78	.78	-9.511***	.000
Assist with dental implants surgery	2.41	.87	3.87	.97	-8.198***	.000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instruments for goods	1.77	.62	4.39	.63	-20.927***	.000

*** p<.001

한방진료업무 간호조무사의 항목별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한방진료업무의 ‘침/뜸/부항시술 보조하기’(t=-2.759, p<.01)와 ‘온찜질 및 적외선 치료 보조하기’(t=-3.452, p<.01), ‘탕약조제 보조하기’(t=-11.369, p<.001), ‘한방시술후 뒧 정리하기’(t=-11.199, p<.001)는 간호조무사의 스트레스가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나, ‘환자 신체 계측하기’는 간호조무사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7] Itemized medical medicine nursing assistants job satisfaction and stress the difference (N=95)

Division	Satisfaction		Stress		t	p
	Mean	SD	Mean	SD		
Measuring the patient's body	3.15	.64	2.96	.60	1.841	.069
Acupuncture / moxibustion / cupping treatment	2.76	.78	3.08	.74	-2.759**	.007
And infrared therapy assistant to onjjimjil	2.74	.75	3.19	.83	-3.452**	.001
Decoction prepared to assist	2.19	.94	3.93	.79	-11.369***	.000
Back to organize the herbal treatment	2.12	1.01	4.03	.90	-11.199***	.000

** p<.01, *** p<.001

입원환자간호업무 간호조무사의 항목별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입원환자간호업무의 ‘욕창간호 및 체위변경’(t=-9.000, p<.001)는 간호조무사의 스트레스가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나, ‘활력징후(vital sign) 측정하기’, ‘관장하기’, ‘위장관 식사 보조하기’, ‘기관절개환자 분비물 제거하기’, ‘소변줄 삽입/제거 보조하기’, ‘의료보조장구 착용 도와주기’, ‘환자 호흡유지 및 호흡기 달아주기’, ‘임종간호 보조하기’, ‘침상정리 정돈하기’, ‘간호기록부 작성하기’는 간호조무사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양시설간호업무 간호조무사의 항목별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요양시설간호업무의 ‘중풍환자 간호하기’(t=-4.219, p<.01)와 ‘치매환자 간호하기’(t=-4.190, p<.01), ‘욕창치료하기’(t=-3.729, p<.01), ‘비위관/소변줄 교체하기’(t=-4.291, p<.01), ‘기관절개관 교체하기’(t=-2.738, p<.05)는 간호조무사의 스트레스가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나, ‘요양환자 관절운동 및 체위변경하기’는 간호조무사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가 없었다.

[Table 8] Nursing assistants in nursing patient satisfaction and stress the difference between each item

(N=8)

Division	Satisfaction		Stress		t	p
	Mean	SD	Mean	SD		
Vital signs (vital sign) to measure	2.50	.53	2.00	1.07	.935	.381
To govern	2.88	.35	2.38	1.30	.935	.381
GI meal aid	2.75	.46	2.50	1.31	.447	.668
Removing the tracheostomy patient discharge	2.75	.46	2.63	1.41	.205	.844
Sobyeonjul insertion / removal aid	2.88	.64	3.00	1.69	-.196	.850
Help give medical aid equipment wear	3.00	.53	2.50	1.41	.837	.430
Keep the patient breathing cycle and respiratory weighed	3.00	.76	2.75	1.58	.424	.685
Assist with end-of-life care	2.63	.52	2.88	1.64	-.357	.732
Pressure ulcer care and postural changes	2.88	.35	4.00	.00	-9.000	***
Organized by the bed	3.00	.53	3.88	.83	-2.198	.064
Creating a nursing records	2.13	.99	2.88	1.81	-.767	.468

*** p<.001

[Table 9] Nursing assistants in nursing care facilities, and the stress of satisfaction differences by item

(N=15)

Division	Satisfaction		Stress		t	p
	Mean	SD	Mean	SD		
Care for stroke patients	2.27	.70	3.80	.86	-4.219**	.001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2.33	1.05	3.80	.77	-4.190**	.001
Changing the range of motion and postural care patients	2.87	.83	3.20	.86	-.924	.371
Treatment of pressure ulcers	2.53	.99	3.93	.88	-3.729**	.002
Nasogastric tube / sobyeonjul replaced	2.13	.83	4.00	1.07	-4.291**	.001
Institutions to replace the section Overview	2.33	1.11	3.60	.99	-2.738*	.016

** p<.05, * p<.01

특수간호업무 간호조무사의 항목별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Special care nursing assistants work satisfaction and stress the difference between an itemized

(N=6)

Division	Satisfaction		Stress		t	p
	Mean	SD	Mean	SD		
Assist in emergency first aid	2.50	.55	3.83	.41	-4.000*	.010
Nursing Assistant to the intensive care unit	2.17	.75	4.00	.63	-3.379*	.020
Endoscopy aid	2.83	.41	3.50	.55	-2.000	.102
Assist with CPR	2.17	1.47	4.33	.82	-2.381	.063
Assist in electrocardiogram (EKG)	3.17	.98	3.50	1.05	-.500	.638
Assist in three	2.50	.84	3.83	.41	-3.162*	.025
Assist radiography	2.83	.41	3.17	.41	-1.000	.363

* p<.05

특수간호업무의 ‘응급환자 응급처치 보조하기’(t=-4.000, p<.05)와 ‘중환자실 간호 보조하기’(t=-3.379, p<.05), ‘위 세척 보조하기’(t=-3.162, p<.05)는 간호조무사의 스트레스가 만족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나, ‘내시경 검사 보조하기’, ‘심폐소생술 보조하기’, ‘심전도 검사 보조하기’, ‘방사선 촬영 보조하기’는 간호조무사의 만족도와 스트레스의 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입찰의사결정요인과 입찰의사결정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Table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GFI=0.916, AGFI=0.886, RMR=0.047, RMSEA=0.039, NFI=0.855, IFI=0.934, TLI=0.912, CFI=0.932로 나타났다. AGFI, NFI의 적합도 지수는 0.9보다 다소 낮았으나 거의 근접하여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1] Research Model Fit Index

index	Fit index	Optimization model	Model fit
Absolute fit index	χ^2 test	$p > 0.05$	$\chi^2 = 1802.577$ df=505 $p < 0.001$
	GFI	≥ 0.9	0.916
	AGFI	≥ 0.9	0.886
	RMR	≤ 0.5	0.047
Incremental fit index	RMSEA	≤ 0.08	0.039
	NFI	≥ 0.9	0.855
	IFI	≥ 0.9	0.934
	TLI	≥ 0.9	0.912
	CFI	≥ 0.9	0.932

[Table 12] Resul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Estimate	SE	Standardized Estimate	t (C.R)	
Job satisfaction	→ Emotional stress	4.048	1.506	3.821	2.687**
	→ Physical stress	3.794	1.385	4.386	2.740**
	→ Work stress	2.136	0.841	2.912	2.539*
	→ Stressful work environment	0.807	0.379	2.163	2.129*
Satisfaction of working conditions	→ Emotional stress	-4.071	1.445	-3.310	-2.816**
	→ Physical stress	-3.479	1.317	-3.465	-2.643**
	→ Work stress	-1.847	0.800	-2.169	-2.310*
	→ Stressful work environment	-0.817	0.367	-1.885	-2.226*
Social satisfaction	→ Emotional stress	0.889	0.489	0.711	1.818
	→ Physical stress	0.440	0.431	0.431	1.022
	→ Work stress	0.339	0.268	0.391	1.265
	→ Stressful work environment	0.141	0.115	0.321	1.226
Satisfaction future	→ Emotional stress	-2.480	0.774	-2.567	-3.203**
	→ Physical stress	-2.209	0.712	-2.801	-3.102**
	→ Work stress	-1.512	0.441	-2.261	-3.431***
	→ Stressful work environment	-0.652	0.219	-1.916	-2.975**

* : $p < 0.05$, ** : $p < 0.01$, *** : $p < 0.001$

먼저 직무만족도의 업무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의 결과 업무 만족도와 정서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821, 업무 만

족도와 신체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4.386, 업무 만족도와 업무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912, 업무 만족도와 근무환경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163으로 나타났고, 업무 만족도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맞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의 근로조건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의 결과 근로조건 만족도와 정서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310, 근로조건 만족도와 신체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465, 근로조건 만족도와 업무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169, 근로조건 만족도와 근무환경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885로 나타났고, 근로조건 만족도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조건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직무만족도의 사회적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의 결과 사회적 만족도와 정서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711, 사회적 만족도와 신체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431, 사회적 만족도와 업무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391, 사회적 만족도와 근무환경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321로 나타났고, 사회적 만족도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직무만족도의 미래지향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의 결과 미래지향 만족도와 정서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567, 미래지향 만족도와 신체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801, 미래지향 만족도와 업무적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261, 미래지향 만족도와 근무환경 스트레스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916로 나타났고, 미래지향 만족도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지향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3.6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간호조무사의 직무만족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직무만족도의 업무 만족도는 스트레스(정서적, 신체적, 업무적,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업무 만족도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무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맞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직무만족도의 근무조건 만족도는 스트레스(정서적, 신체적, 업무적,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근무조건 만족도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무조건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직무만족도의 사회적 만족도는 스트레스(정서적, 신체적, 업무적,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 만족도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직무만족도의 미래지향적 만족도는 스트레스(정서적, 신체적, 업무적, 근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미래지향적 만족도는 모든 스트레스 요인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만족도는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별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인력관리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간호조무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간호조무사 직업을 선택한 동기로는 전체응답자의 55.2%가 '취업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가장

많았고[7,9]와 일치하였다. 근무여건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급여 및 처우문제, 가 38.2%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고려에 대해서는 전체의 76.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타 직종으로 이직이유로는 '경력과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및 승급의 사회적 제도미비로 발전의 한계점을 느낀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다[8,9]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체의 평균은 2.55로, '사회적만족도'(M=2.72), '미래지향적만족도'(M=2.62), '업무만족도'(M=2.46), '근로조건만족도'(M=2.44)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차이 분석에서는 '치과병의원'(M=2.80), 근무자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8,11]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수행진료과목은 치과, 한방과, 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순으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10,11]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업무 만족의 관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으면 업무 만족이 저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7,9]와 일치한다.

선행연구[7,8,9,10,11]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관련요인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성과는 다양한 직무 영역 간 직무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의료기관에 근무자 중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인력은 직급과는 무관하게 간호 행위에 대한 책무성이 담보됨으로 업무설정 및 직무 활동에서 상호 신뢰와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교대근무가 필요한 병실 근무자의 직무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대근무 제도의 개선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한 직장내 직무 만족도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능률적으로 직무에 임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직무 만족도 연구에서 4개의 하위 영역에 속한

항목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낮은 요인 분석 결과 간호조무사로서 경력과 실력을 통해 승급 및 승진을 할수있는 사회적 기회 부여가 결여됨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가 높은 요인 또한 오랜 경험을 쌓아도 앞날에 대한 비전이 없음에서 오는 자아 정체감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정한 현장경력 후 추가 교육 및 보수교육 후 승급시험을 통해 전문직으로 발전해 나 갈 수 있는 사다리 모형의 간호인력, 양성 관리 제도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연구는 직무 영역별 분석을 통한 직무만족도 와 스트레스 연구를 토대로 간호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간호조무사의 양성제도개선을 연구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S. N. Lee, "Self-concept and job satisfaction of nursing assistants Study", 1989.

[2] N. R. Park, "Nursing assistants workforce supply and dem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4, 1989.

[3]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pp.79-182, 2013.

[4]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Data, 2013.

[5]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s, pp.98-103, 2009.

[6] Y. H. Oh, "The Demand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in Korea and Policy Recommend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 28(1), pp.68-86, 2008.

[7] G. J. Kim, K. J. Sa, "The Factor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of Assistant Nurses in General Hostials", Yeungnam Univ, Vol.24, No.2, pp.296-304, 2007.

[8] S. S. Hong, S. H. Jung, H. Y. Kim, Y. H. Choi, K. B. Song,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between dental hygienist and assistant nurses in Daegu, Korea", Korean Acad Dent Health, Vol.29, No.2, pp.172-183, 2005.

[9] M. R. Sim, K. H. Kim, "Job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Task Performance among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ssista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Korean Acad Nurs Admin, Vol.16(4), pp.446-454, 201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4.446>

[10] M. S. Kang, "A Study on the Work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Assistant Nurses", The research bulletin of Chinju J. Col. of Nursing & Health, Vol.20-21, pp.19-45, 1997.

[11] H. J. Park, Y. S. Yoon, Y. S. Kim, Y. M. Lee, M. H. Jung, "A study concerning the working condition and the recognition on night working of Nurse and Nurse Aid", J.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pp.81-88, 2002.

[12] Community Health Survey, "2010 healthy happy positive community healthy investigation", http://chs.cdc.go.kr/03_contents/contents_04.jsp, 2010.

[13] Medical law relationship,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14] Hazan, c. & Shaver, P.R, "Love and work :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9, pp.270-280, 1990.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9.2.270>

[15] J. I. Kim, "A Study on Relation between Stress from Work and Psychological Response", 1988.

[16] Ivancevich, J. M., & Matteson, "M. T. 1980. Stress and Work: A Managerial Perspective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0.

[17] J. M. Lee, H. K. Park,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Job Stress (1)",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4, No.1, pp.241-262, 1998.

[18] Nurse Assistant Job Analysis Statement, "National Test Intelligence", 2002.

[19] Y. H. Jung, P. W. Kim, S. J. Ko, M. S. Jung, Y. R. Kwon, S. B. Park, "Job analysis of nursing assistants and Curriculum Improvement Study Polic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양 갑 석(Kab-Suk Yang)

[정회원]



- 2014년 5월 ~ 현재 :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2014년 5월 ~ 현재 : 한빛간호학교 교장

<관심분야>

교육복지, 대안학교, 지역사회간호, 간호인력양성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 교육방법, 정보보안, 사회복지조사